

다문화교육편 다름이 함께의 일상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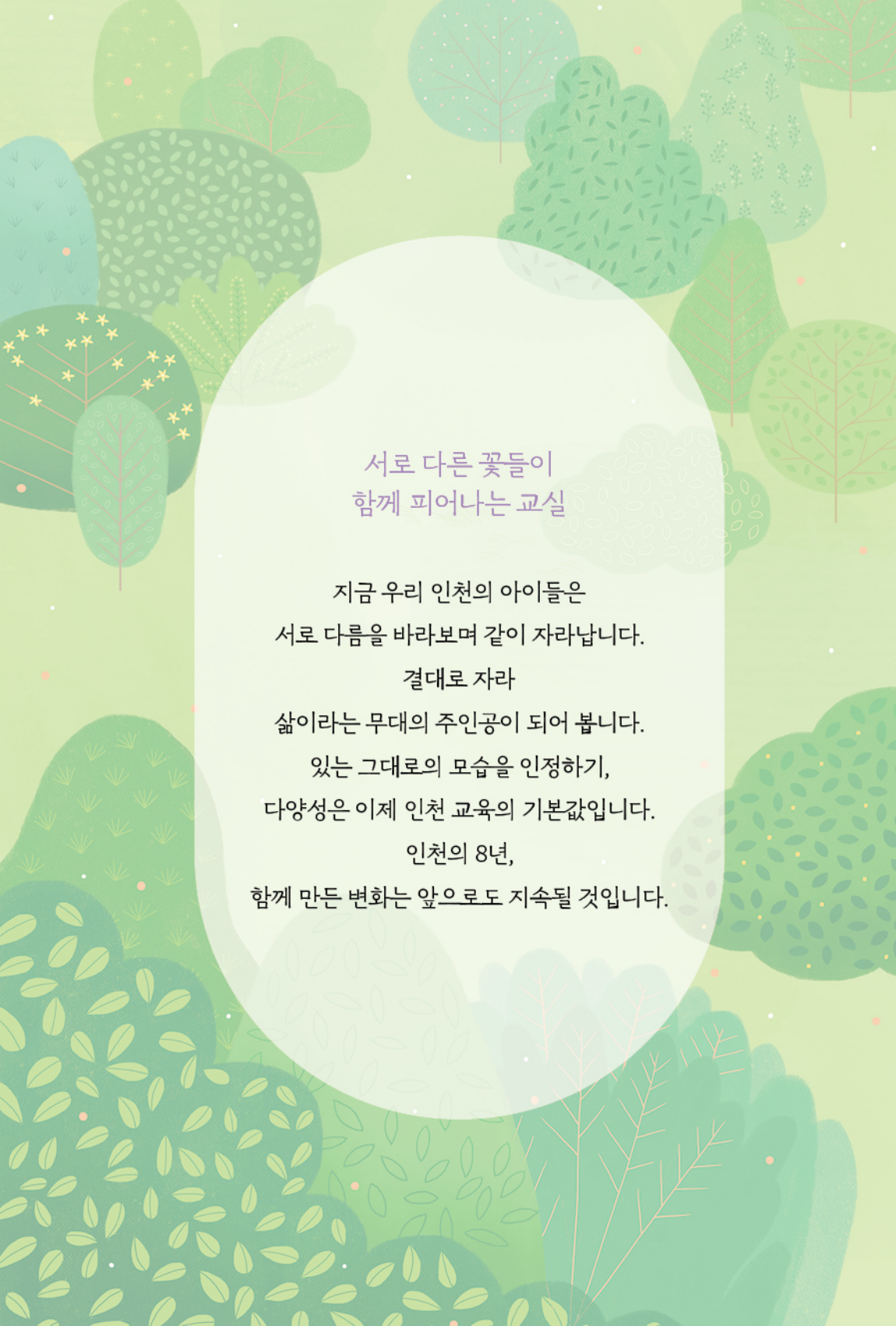


5

다문화교육편 다름이 함께의 일상이 되다

요즘, 인천 학생 우리

‘요즘, 인천 학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 실태조사(2018~2025)」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피어나는 교실

지금 우리 인천의 아이들은
서로 다름을 바라보며 같이 자라납니다.
결대로 자라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기,
다양성은 이제 인천 교육의 기본값입니다.
인천의 8년,
함께 만든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Contents

Chapter.1

데이터로 본 이주배경학생의 변화

데이터로 본 인천의 8년	08
데이터에 기반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10
서로 닮아가는 8년의 세월	17

Chapter.2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두 지지대

낮선 학교에서 발을 내딛다	22
나를 받쳐준 부모님과 선생님	26
함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성장	31

Chapter.3

달라진 교실, 달라진 이름

나라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	36
이름을 되찾아 자라는 아이들	38
다양성이 힘이 되는 교실을 꿈꾸며	42

Chapter.4

다양성은 인천교육의 기본값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다양한 길, 하나의 원칙	48
차이보다 가능성: 이주배경학생의 주체적 미래설계	51
보편교육 속 다양성 존중으로의 전환	56

Chapter.1

데이터로 본 이주배경학생의 변화

데이터로 본 인천의 8년

데이터에 기반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서로 닮아가는 8년의 세월

⑤ 다문화교육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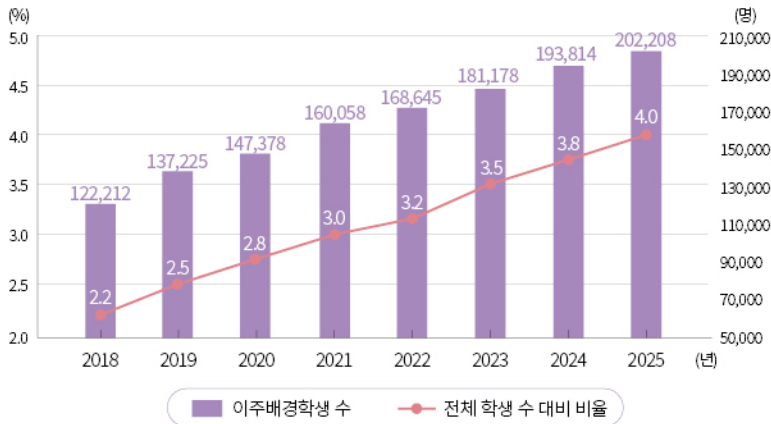
요즘, 인천 학생 우리

○ 8년 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낯설고 어려웠지만,
오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러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렇게 닮아갑니다.

데이터로 본 인천의 8년

우리나라의 이주배경학생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67만 명에서 2025년 511만 명으로 8년 사이 56만 명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약 8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에서 4%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¹



▶ 이주배경학생 수 및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외국인 인구 증가는 과거와 달리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주배경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평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이주배경학생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53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지역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현장의 일상적인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은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닌, 전체 교육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가 교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다음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인식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식, 학교 생활 만족도, 학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 자존감 및 자기만족, 정신건강, 자기관리 등등...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인식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데이터에 기반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아랍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학교에 오면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고,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차이가 컸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을 때는 엄마가 친구를 만나러 가던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 해서 많은 동생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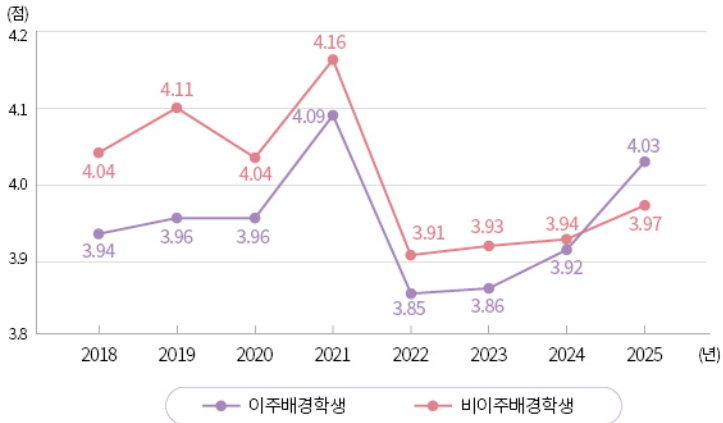
- 2016년 다문화 중심학교(인천화전초등학교) 보고서 일부 발췌

인천에서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교사들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 현장에는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의 다문화 중심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의 경험은,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해 보거나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중 희망 학생들을 모아 특기적성(만들기, 놀이 등) 수업을 해주는 정도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주말에 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가는 정도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AI는 없었고, 언어 번역 역시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이주배경학생과 관계를 맺는 일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습 부진으로 인한 개별지도, 가정의 돌봄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서적 지원, 또래 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생활지도까지, 교실 안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 있었습니다.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인식(5점척도 평균)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2018년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0.10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0.06으로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을까요?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교직원 다문화교육 연수와 한국어학급 담임교사·한국어 교육 교원 연수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차근차근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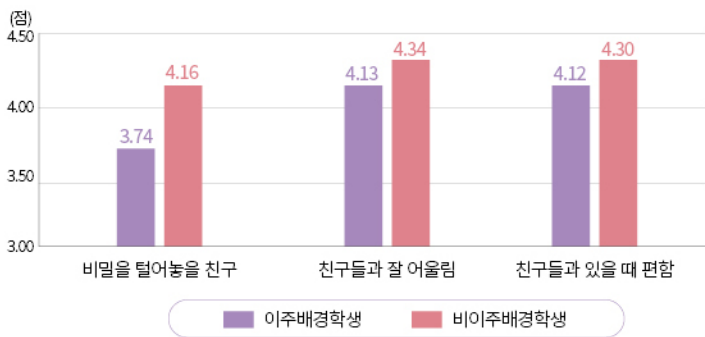
한편,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멘토링 형태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기초학습을 점검하고, 체험활동이나 일상

적인 학교생활을 함께하며 관계를 쌓았고, 대학생 멘토와의 연계를 통해
 숙제 지도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언어와 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통역 및 다문화
 상담 지원’을 통해 담임교사가 학생과 보호자, 전문상담사 사이를 잇는 역
 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혼자 떠안기보다,
 함께 살피고 나누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노력
 이 쌓여 가는 동안, 학생들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
 를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이주배
 경학생에게도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친구 관계와 관
 련된 문항 전반에서 이주배경학생의 만족도는 비이주배경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집단 간 차이는 ‘나는 비밀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라는 문항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이
 주배경학생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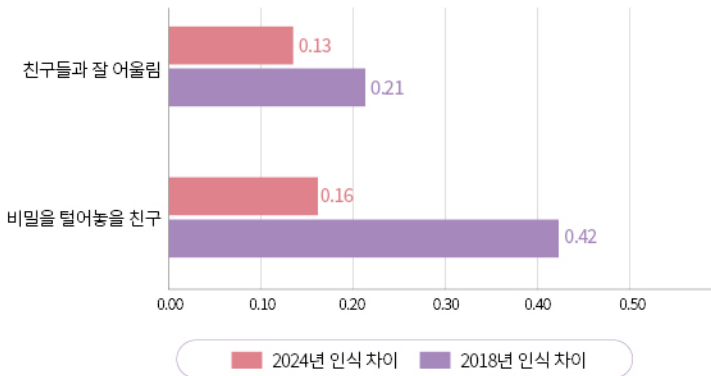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의 친구 관계 만족도(2018, 5점척도 평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한국어 지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어 Pre-school 위탁교육을 통해 일정 기간 언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방과후 한국어 교실이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교실 안팎에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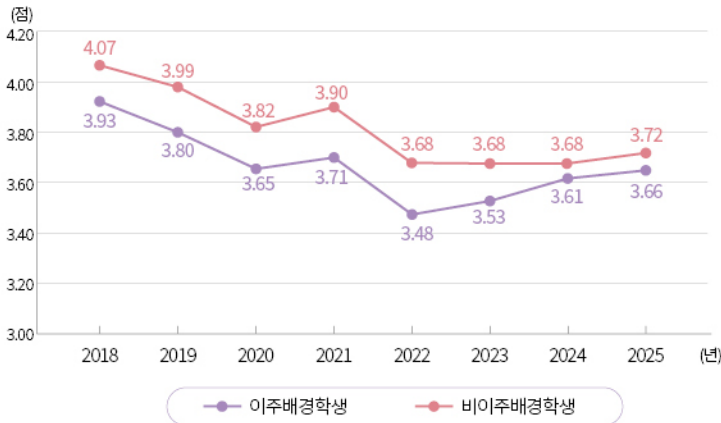
동시에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연구학교가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또래 관계에서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친구 관계를 묻는 문항인 ‘비밀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에서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의 점수 차이는 2018년 0.42에서 2024년 0.1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교실 안에서 관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인천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인식 차이 변화

2018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비이주배경학생보다 평균 0.14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0.06으로 줄어들어, 두 집단 간 학교생활만족도 격차가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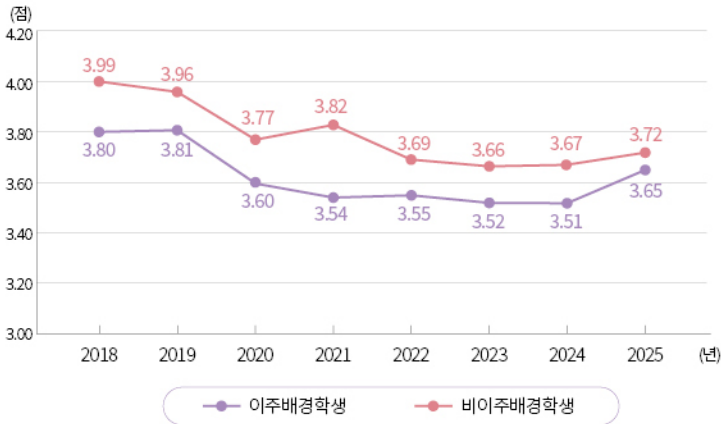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 학교생활만족도(5점척도 평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의 기반이 되며,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박지현·윤혜미, 2017; 변숙이, 2025).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내심과 사회적 기술, 리더십을 보이며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변숙이, 2025).

반면, 사회적 편견이나 언어·역량의 차이,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또래 관계에서 놀림이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불안과 우울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존감 및 자기만족 영역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비이주배경학생보다 0.19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0.07로 줄어들어, 자존감과 자기만족 영역에서도 집단 간 격차가 절반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 자존감 및 자기만족도(5점척도 평균)

학교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강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무대에 선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언어에 대한 자신감과 문화적 자긍심을 조금씩 키워 갔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역 및 다문화 상담 지원 역시 학생들의 학교생활 초기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서, 학교에 적응해 가는 속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로

찾아가는 통역 및 다문화 상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사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고민해 왔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과 교사연구회 활동을 이어가며, 인천 지역 학교의 현실에 맞는 다문화교육 자료와 수업 사례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전히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등 가정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숙이(202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이주배경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학교 적응에는 교사와 또래 관계, 그리고 가정의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은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실과 또래, 가정이 함께 연결될 때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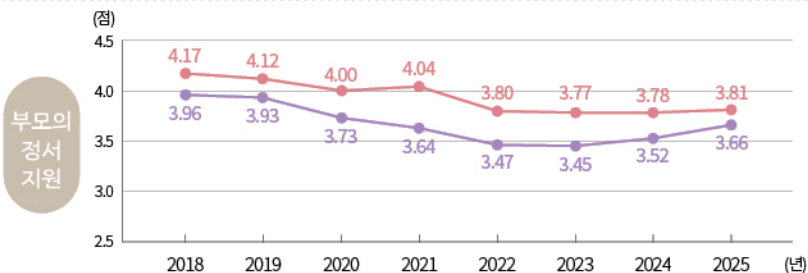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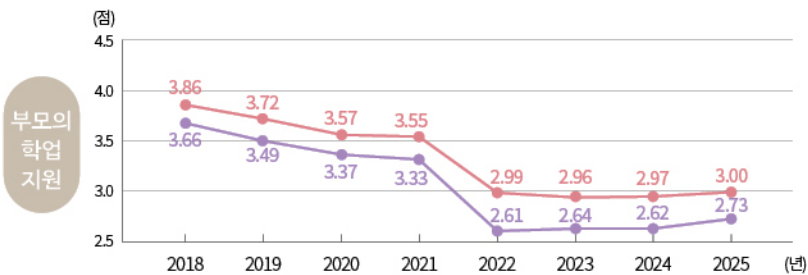


서로 닳아가는 8년의 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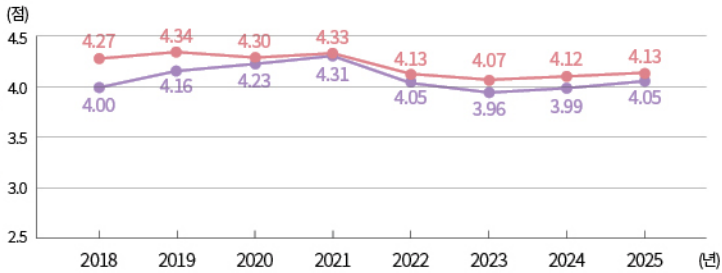
교사에 대한 인식은 비이주배경학생이 이주배경학생보다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존감 및 자기만족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지표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 중 약 50%는 국내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등이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쉽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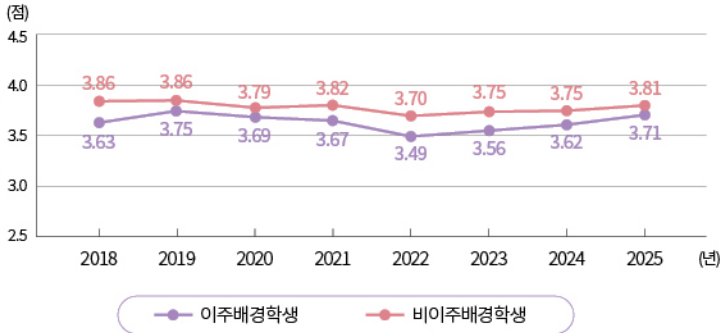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 다문화 수용성, 건강발달 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주배경학생은 비이주배경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건강 발달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의 인식 차이(5점척도 평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다문화교육이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친구, 부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를 교사와 또래,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편교육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지난 8년간의 데이터는 인천의 교실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또래 관계, 자존감 등 여러 영역에서 개선의 흐름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는 교사가 느끼는 작은 변화들, 학생 스스로 헤쳐 나가는 적응의 시간들, 가정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성장의 온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잠시 내려놓고,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현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Chapter. 2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두 지지대

낯선 학교에서 발을 내딛다

나를 받쳐준 부모님과 선생님

함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성장

5 다문화교육편

요즘, 인천 학생 우리

○ 이주배경학생은 두 세계에서 자랍니다.

하나는 '집'에서 숨쉬는 일상의 언어,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나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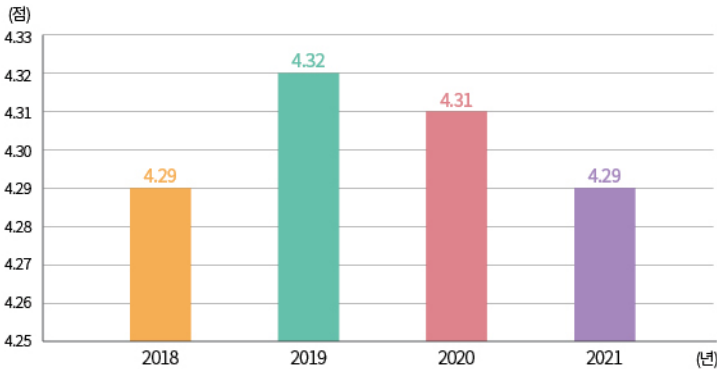
이 두 세계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줄 때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기 시작합니다.

낮선 학교에서 발을 내딛다

“비이주배경학생은 국적, 언어, 문화권 등이 다른 이주배경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을까?”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국적·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를 사귀겠다”는 문항에 대해 인천의 학생들은 최근 4년간 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대 초·중반의 응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국적·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를 사귀겠다” 응답



“그렇다면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인천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출생 학생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 낯선 학교 문화, 익숙하지 않은 일상 규칙 속에서 학생은 조심스레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은 학생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새로운 환경에 데려온 학부모 또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 하고, 그 학생을 교실에서 맞이한 교사 역시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같은 마음이면서도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천 C초등학교, 마인(가명)은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는 6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외국인 가정 학생입니다. 한국어는 일상적인 말과 교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아직 읽기와 쓰기는 어려워합니다. 한국에 온 후 베트남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곁에는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Q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는 어땠나요?

A 말이 잘 안 들려서 무서웠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Q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국어 시간요. 글자가 많고 빨리 지나가서 어려웠어요. 지금도 (한국어가 어려워) 싫어요.

Q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과목이 가장 좋아요?

A 수학이요. 한국어가 적어요. 그리고 체육이요. 뛰어놀면 좋아요. 친구들과랑 웃게 돼요.

Q 친구들과는 어떻게 친해졌나요?

A 친구가 먼저 와서 말했어요. “같이 하자” 이렇게요. 제가 말이 조금 느려도 친구가 기다려 줬어요. 그래서 점점 편해졌어요.

Q 가족과 다 같이 한국에 오고 나서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나요?

A 네.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할머니, 베트남 집, 친구들... 하지만 엄마, 아빠, 형이 여기(한국)에 있어서 가고 싶진 않아요. 엄마는 매일 나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Q 선생님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A 선생님은 천천히 말해줘요. 제가 모르면 한 번 더 말해줘요. 조금만 한국어를 말해도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잘했다고 말해줘요. 수업 끝나고 한국어도 가르쳐줘요.

Q 지금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A 지금 좋아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좋아요.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은 혼자가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학생의 결
에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방향을 잡아준 부모, 그리고 학교에
서 관심 있게 학생과 함께 걸어준 교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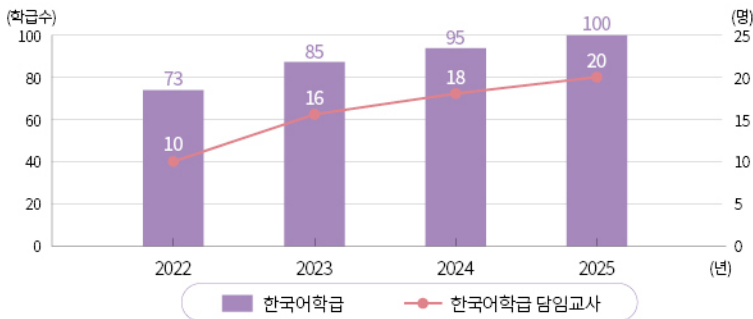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이자 학생의 성
장을 받쳐주는 두 개의 지지대인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
어집니다.



나를 받쳐준 부모님과 선생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 보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멘토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 멘토링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한국어, 기초학력,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이중언어 등 여러 영역을 차근 차근 배우며 자신감을 쌓아 갑니다. 2025년 현재 초등 47개교, 중등 22개교, 고등 25개교 등 총 94개 학교에서 43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앞서 인터뷰한 마인(가명)도 방과 후 멘토링을 통해 선생님과 일대일로 한국어를 배우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교에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어 학생이 한국어학급에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밀집학교에는 한국어학급 **정규 담임교사**가 있어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의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학급 또한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의 전문성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연도별 한국어 학급 설치 및 한국어 학급 담임교사 편성 현황²

2 인천광역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2022-2025)

학생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며 공교육 안착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인천 D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러시아어를 공부합니다.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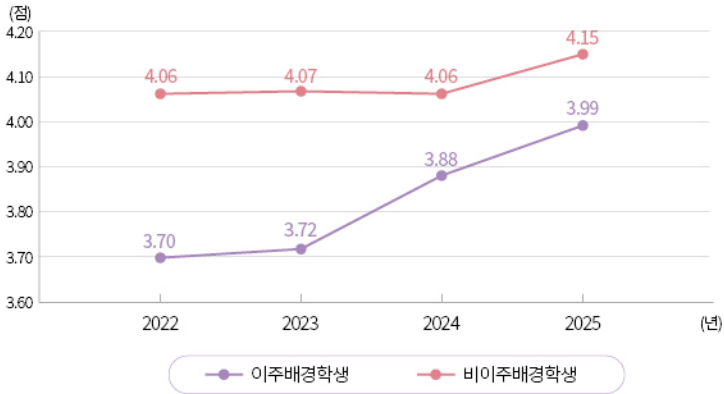
▶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지지대

아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은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과의 소통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방과 후 시간을 내어서 모여 학생의 ‘언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아랍어권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아랍어를 익혀보니,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의 체계가 아니라 사고, 습관, 감정이 엮여 형성되는 문화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교사들이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생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학생이 없는 공간에서도 그 학생을 떠올리고 이해하려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과의 일상을 함께 걷고, 학생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곁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가정에서는 마음을 지탱해 주는 역할이 이루어 집니다. 학교가 ‘배움의 자리’라면, 가정은 ‘쉬어갈 자리’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최근 몇 년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가정이 학생에게 조금씩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의 가정생활 만족도(5점척도 평균)

인천E고등학교 학부모인 성미(가명) 씨는 2019년에 초등학생이던 자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입니다. 성미(가명)씨와의 대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학부모의 고민과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자녀가 한국 학교에 처음 다녔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 처음에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저 자신도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막막했습니다. 특히 언어가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걱정이 컸습니다.

Q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아이의 한국어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조금씩 한국어책을 읽고, 단어를 외우고, 영상도 함께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함께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A 네, 처음에는 선생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급 소통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공지 사항을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짧은 문장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학교와의 소통도 익숙해졌습니다.

Q 지금은 아이의 학교생활이 어떠하나요?

A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숙제할 때마다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합니다.



▶ 이중언어말하기대회³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인천 관내 이주·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이중언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로 주제를 준비해서 발표함

Q 이 과정을 지나오며,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적응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는 학교에서 하루하루 작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교과서와 글자들, 친구들의 빠른 대화,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 그 모든 낯설 속에서 아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언어를 함께 배우며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순간을 옆에서 함께하는 경험은 학생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의 적응을 위해 가정은 완벽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의 흔들림을 가만히 받아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함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성장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언어, 낯선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르며 친구와의 관계를 넓히고,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입니다. 대회는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능력을 장려하고, 학생이 가진 언어적·문화적 강점을 지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학생’이 ‘부모’와 ‘교사’의 도움을 받고 노력하여 자신의 ‘강점’을 발휘한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학생은 발표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먼저 한국어로 발표한 뒤 동일한 내용을 부모의 모국어로 한 번 더 발표합니다.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모국어로 내용을 정리하고 연습합니다. 이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함께 한국어 표현을 다듬으며 발표 준비를 이어갑니다. 평소 자신의 언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를 자신 있게 사용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뜻깊습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두 세계에서의 지지가 서로 맞물리며, 학생은 두 언어를 동시에 연습하고, 두 정체성을 조화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발표의 순간은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이 성장해 온 여정을 응축해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제16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2년 전 중도입국하여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한 학생은 지금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처음 만난 모습과 다른 자신 있는 모습으로,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 언어로 풀어내는 학생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인천F초등학교 지도교사 이OO

이주배경학생은 두 세계에서 자랍니다. 하나는 ‘집’에서 숨쉬는 일상의 언어,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나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 두 세계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줄 때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는 서로를 채우는 두 개의 지지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지지대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곁에서 진심 어리게 감싸주고, 교사

는 학교에서 아이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히 이끌어
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때, 학생들은 두 세계를
품은 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이루어집니다. 아이의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넓고, 앞으로의 발걸음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hapter. 3

달라진 교실, 달라진 이름

나라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

이름을 되찾아 자라는 아이들

다양성이 힘이 되는 교실을 꿈꾸며

⑤ 다문화교육편

요즘, 인천 학생 우리

○ 10년 전, 다름이 '낯섦'이던 시절에서

지금은 다름이 '자연스러움'이 되었으며,
10년 후에는 우리의 다름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

2015년, 인천G초등학교의 4학년 1반 교실에는 ‘러시아’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또래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어머니의 국적이 러시아인 이주배경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한국식 이름이 있었지만, 같은 반 친구 그 누구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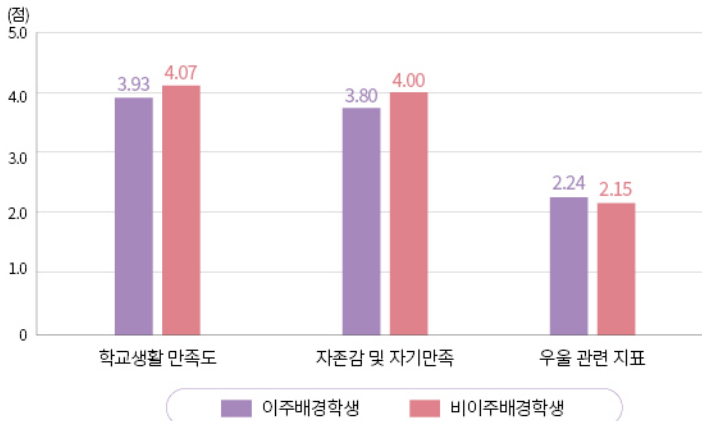
당시 교실에는 이주배경학생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그 학생을 알고 있을 정도로 남다른 존재감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막연함 속에서, 교사는 한국어 수업과 교과 학습 진도 사이에서 매일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에는 그 친구들(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욕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실 안의 다름이 ‘자연스러움’이 아닌, ‘조심스러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 인천H중학교 교사 이OO

과거 이주배경학생은 학교와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주배경학생과 짝이 되면, 자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에 실시한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존감 및 자기만족은 비이주배경학생에 비해 낮고, 우울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경험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체감되는 문제였습니다.



▶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인천 학생의 정서·심리적 적응(2018, 5점척도 평균)

그 시절 교실에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구분 짓기’가 존재했습니다. ‘다문화교육’은 존재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일 체험 프로그램’ 일 뿐,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이주배경학생을 만난 경험이 적었고, 친구들 역시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을 그음으로써 분리하고 별도의 존재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아 자라는 아이들

2025년, 인천J중학교 2학년 교실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다양한 외모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쉬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자는 방송 안내가 들려옵니다. 친구와 함께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속담과 격언이 붙어있고, 특별실의 용도를 알리는 팻말에는 교실 이름과 함께 인포그래픽이 나타나 있습니다.



▶ 여러나라 언어로 된 속담과 격언

“처음에 학교에서 아픈데, ‘보건실’ 글자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어요. 친구가 같이 가 줬는데, 보건실 팻말에 약 그림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갈 수 있었어요. 도서관도 책 그림 보고 알았어요. 지금은 한글 보고 읽을 수 있지만요. (웃음)”

- 인천J중학교 2학년 학생 마OO

인천K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음식의 날’을 주제로 이국적인 음식이 나오는 날은 대인기입니다. K초등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학생들이 재학하는 ‘다문화 밀집학교’입니다.



▶ 세계 음식의 날 급식

이 학교의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맛을 재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인천 시내 세계 음식점에 방문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재료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양)선생님이 연수 다녀와서, 다른 학교에서 세계 음식 만들고 애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휴, 나도 못 먹어본 음식을 무슨 수로 맛을 내요. 그러니까 가서 먹어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면, 애들이 그거 먹고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말하면 그게 예뻐서 또 다음에 준비하게 되고 그런 거죠.”

- 인천K초등학교 조리사 임OO

“친구들이 저한테 반미 샌드위치 맛이 베트남 거랑 똑같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진짜 맛을 모르니까요! (웃음)”

- 인천K초등학교 5학년 학생 장OO

2024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자존감 및 자기만족, 우울감에 대한 설문 응답은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교실 현장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한 고등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년 전보다 학교에 이주배경학생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낍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친구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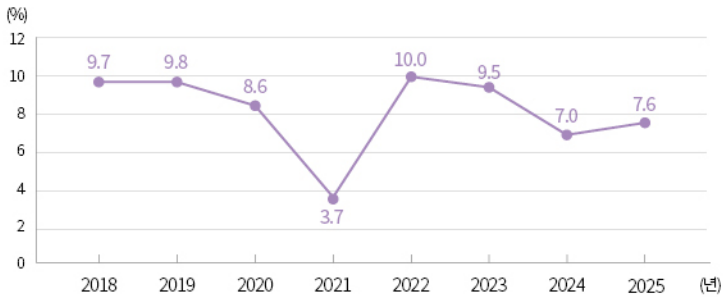
- 인천L고등학교 교사 강OO

이런 변화의 뒤에는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상담교사와 통역 선생님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있어, 언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 저는 이제 중3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려고 결정했는데, 어떤 학교에 무슨 내용 배우는지 잘 모르고 찾는 방법도 모르겠어서 걱정이었어요. 원서를 써야 하는데, 통역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 오셔서 저랑 아버지가 하는 말 듣고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주셔서 같이 찾아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학교 올 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하죠.”

- 인천L고등학교 1학년 학생 진OO

이처럼 학생 개별 맞춤형 언어 및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 지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사에 대한 인식과 교우관계, 자존감 및 자기만족 등 정서·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천 이주배경학생의 무단결석 경험 비율('보통이다' 이상 응답)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온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교사 연수, 자료 개발, 학교별 상담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학생 생활지도의 작은 씨앗을 학교 곳곳에 심고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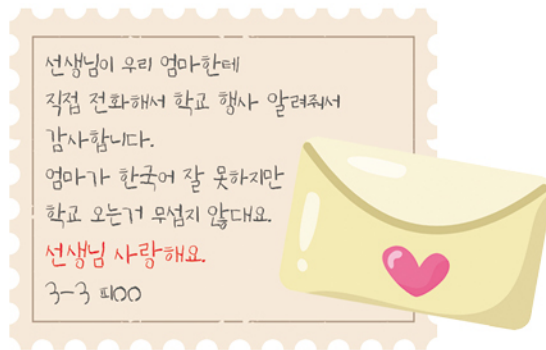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학교 와서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이 되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산도 써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작년 담당자도 학교를 옮겨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진행한 컨설팅 때 알게 된 부장님께 모를 때마다 연락하고 계속 질문하고 하면서 어떻

게 1년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업무하는데 제가 아는 게 조금 생기니까 같이 도와서 하고. 올해도 계속 연락드리면서 도움받고 있어요.”

- 인천M초등학교 교사 오OO

다양성이 힘이 되는 교실을 꿈꾸며

인천 P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쓴 감사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 지원」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이주 배경학생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인천지역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점척도에서 3.48 → 3.66으로, 자존감 및 자기만족은 3.55 → 3.65로 상승하였습니다. 학업 지원과 정서 지원 관련 설문에 대한 응답도 4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	2022년	2025년	5점 척도 증감
학교생활만족도	3.48	3.66	▲ 0.18
자존감 및 자기만족	3.55	3.65	▲ 0.10
학업 지원	2.61	2.73	▲ 0.12
정서 지원	3.47	3.66	▲ 0.19

현장에서 보면, 인천의 다문화교육 지원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촘촘해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지역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마을 기관들도 학생 지원에 함께 손을 보며 일종의 교육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도움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도움받는 아이’였던 이주배경학생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아이’의 역할을 합니다. 이주배경학생이 학급 자치회 회장을 맡고, 한국어 통역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다문화교육이 만든 진짜 변화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천N중학교 교사 한OO

“솔직히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학교 가기 무섭고 싫었어요. 한 학기 센터에서 한국어 배우고 와서 지금은 친구도 많고 동아리에서 학교 끝나고 같이 축구도 해서 좋아요.”

- 인천N중학교 1학년 학생 누OO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못하는 성격인데. 친구가 합창 동아리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간식 받으려고 간 거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대회 준비할 때 조금 힘들고 긴장되는데, 공연 끝나고 박수받으면, 아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 인천N중학교 3학년 학생 리OO

이제 우리는 10년 후의 인천 교실을 상상해 봅니다.

교과서에 실린 ‘세계를 빛낸 위인’은 인천에서 태어나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인천의 학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인물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학교 행사와 학생 자치 회의록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실은 다름을 포용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성이 곧 경쟁력인 사회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더 이상 문화적 차이를 지도하지 않고, 그 차이를 자산으로 확장하는 ‘문화 매개자’로서 학생들의 강점을 키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인천의 다문화교육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방향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낯섦으로 여겨졌던 다름이 이제는 교실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가진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교실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저마다의 힘을 키우며 성장하는 미래를 조용히 그려봅니다.

5 다문화교육편

요즘, 인천 학생 우리

Chapter.4

다양성은 인천의 기본값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 다양한 길, 하나의 원칙

‘차이보다 가능성’
: 이주배경학생의 주체적 미래 설계

보편교육 속 다양성 존중으로의 전환

5 다문화교육편

요즘, 인천 학생 우리

○ 우리는 '차이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믿고 설계하며,
내일의 인천은 모든 학생의 다름을
공동의 경쟁력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다양한 길, 하나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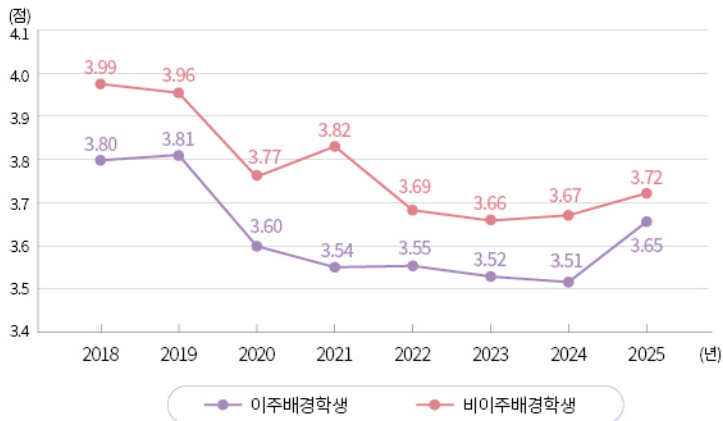
2006년 한국에서 태어난 이○환 학생은 세 살 때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닌 뒤, 2021년 9월 1일 인천으로 돌아오며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성장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학생들과는 경험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미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해 온 만큼 한국 학교의 언어, 문화, 수업 방식이 낯설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초기는 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환 학생은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립감을 많이 느꼈고, 그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 준 한 친구에게 큰 의지를 하며 1학년 1학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어가 점점 늘면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앞으로의 진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었고, 반 친구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경험은 언어가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스스로 관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PC방·노래방 등 또래들이 자주 가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교류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높은 자존감과 능동적인 사회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는 언어 능력이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 자존감 및 자기만족도(5점척도 평균)

2018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서는 자존감 및 자기만족 영역에서 이주배경학생이 비이주배경학생보다 0.19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조사에서는 0.07로 절반 이상 그 차이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년 사이, 학생들의 경험과 관계 맺음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환 학생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구 한누리학교)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한국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위탁 과정을 운영해왔고, 그 과정에는 많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이와 별도로 한국어급, Pre-school 과정을 통해 초기 적응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과정에서 그는 언어를 단순히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강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스마트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꾸고, 생활 자체를 한국어로 바꿨어요. 정보를 찾을 때도 한국어로 먼저 찾아보고, 이후 중국어로 번역해 두 언어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학습 방식은 교재 중심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언어 환경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소설을 한국어로 다시 읽는 방식 역시, 익숙한 구조를 통해 새로운 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비교하며 익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언어 습득을 단순한 공부가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언어는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한 교실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학생마다 속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조건이 언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언어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그 틀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차이보다 가능성’: 다문화 학생의 주체적 미래 설계

2025년 현재 인천에는 약 1만 5천 명의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면,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배우는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의 목표가 특정 학생을 돕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도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각자가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흐름을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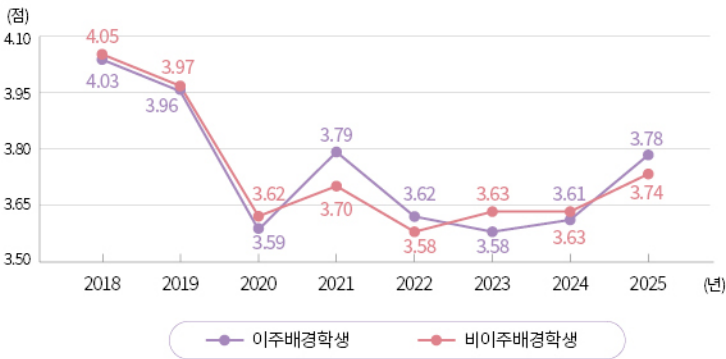
이런 변화는 학교 공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구 인천한누리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곳의 교육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환 학생은 위탁 과정을 마친 뒤, 자신이 가진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점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저런 점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아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학생이 두 문화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자기 성장의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 개인의 정체성이 단일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교육 효과성 인식**에서 이주배경학생이 비이주배경학생보다 인식에 대한 수치가 0.20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인식이 0.0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주배경에 따른 인천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성 인식(5점척도 평균)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은 이주배경학생의 자아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진로교육 효과성 인식이 비이주배경학생보다 0.04 높게 나타난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난 몇 년 사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학업 능력이나 한국어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경험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김○수 학생은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길을 직접 열어가는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직업계고 연계나 기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김○수 학생의 사례는 이러한 지원이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러시아에서 중도입국한 고○○르 학생 역시 주체적인 성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시 쓰기를 즐기며 자신의 강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금도 패션 모델 활동을 이어가며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과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유지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두 사례는 이주배경학생이 특정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학교의 역할은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들도 다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김○영 학생은 2025년 인천세계로배움학교의 ‘한-중 프로젝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가족과는 중국어로 대화하지만, 글을 배운 적이 없어 중국어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출생 이주배경학생이 갖고 있는 이중언어의 자산이 학교교육 속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그는 중국 학생들과 학술 교류를 경험하고,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제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이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언어적 배경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중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기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줄 언어 학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연결되는 활동으로, 2024년과 2025년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K-문화사절단’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팀을 구성하여,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주배경·비이주배경학생과 지도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하여 K-pop 따라 부르기, 드라마 속 한국어, 민속놀이 소개 등을 통해 문화 교류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녀온 뒤 학생들에게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참여 후 참가한 구성원 전원이 함께 ‘너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우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교류 활동을 통해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어도, 우선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를 지니게 되었다고 참여 학생은 말합니다. 교류에 참여한 인솔 교원은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의 학교에는 힘겨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 가정 학생들도 있다. 인천을 찾은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 학생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한국에 친화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학생을 나누고 구분하기보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 모두를 위한 삶의 동반자로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인천교육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 ‘너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우리’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교감 박상희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비이주배경학생과 지도 교사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한국을 알리는 교류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베트남 현지의 교육, 문화 기관 탐방 및 탐구 활동을 통해 호치민과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은 자신의 언어 강점을 발휘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긍심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배경·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보편교육 속 다양성 존중으로의 전환

보편교육 속 다양성 존중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는 선생님 몇 분과 앞으로 나아갈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 사회자 : 이진숙(인천송월초 교사)
- 서해주(미추홀외국어고 교감), 홍성철(인천십정초 교감), 강인성(인천만석초 교사), 석경원(인천십정초 교사), 윤소영(제물포교 교사)

이진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에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석경원 저는 ‘다름’과 ‘틀림’이 다르듯이, ‘다름’과 ‘다양성’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가능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호

름'이 다양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교실에서 서로의 배경을 존중할 때, 학생들은 서로의 세계를 배우고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경험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성 다양성을 '여러 국가, 언어,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배우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함'보다 '자연스럽다는 감각'입니다. 외모나 언어가 달라도 학생들이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학교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다양성이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두 분 모두 다양성을 '가능성'과 '일상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성이 존중받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해주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란 누군가의 차이를 결핍이 아니라 존중의 근거로 바라보고, 공존의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정책을 논하기 전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감대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홍성철 어떤 다양성이든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학생을 학생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특정 국가 출신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낮춰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줄었어요. 정책이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문화로서의 인식 변화라고 봅니다.

이진숙 맞습니다. 학생을 학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출발점이겠죠. 그렇다면, 이주배경학생이 공교육에 진입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홍성철 저는 한누리학교(현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처럼, 한국어가 처음인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해주 여러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가정의 학생들을 도왔을 때, 인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학교 입학까지 출입국사무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NGO 등이 함께 움직였지만, 각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지원 과정이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이주할 때마다 입국·정착·교육을 함께 조율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연결되는 윈스톱 통합지원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진숙 적응 프로그램과 통합지원 시스템, 모두 중요한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살리는 교육에 대한 논의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소영 저는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 자체가 그런 흐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려는 실천이라고 보고요.

강인성 다문화이해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비이주배경학생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때, 이주배경학생은 자신의 언어와 배경을 자랑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석경원 경인교대나 지역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처럼 학습과 진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언어와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다언어 도시 인천’을 만드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홍성철 저는 굳이 이주배경학생의 강점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그렇다면, 이주배경학생의 진로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강인성 ‘개인 맞춤형 교육’과 ‘강점 개발 교육’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언어를 익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로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윤소영 저 역시 맞춤형 교육과 함께 통합적·지속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한 채널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주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진숙 학생 외에 다른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석경원 학부모에게는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다언어·다문화 이해 워크숍이나 교과 적용 사례 나눔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주 이주배경·비이주배경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읽·걷·쓰 기반 북콘서트,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양성 단계부터 ‘교실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함께 있다’는 전제를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피드백을 설계하는 시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마지막으로 보편교육 속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천형 다문화교육 실현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성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교실 안에서 다양함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석경원 모든 학생이 ‘우리’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포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인천형 다문화교육은 지역의 특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 학교-교육청-기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윤소영 ‘지속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와 ‘관계 중심의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역량을 주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철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교육 또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밀집학교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서해주 모든 교실이 처음부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우리 인천교육의 기본값으로 두고 교육과정, 교사연수, 학급운영 방식, 학교문화 전반에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진숙 지금까지 보편교육 속 다양성 존중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천 다문화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우리는, 보편교육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학습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학생은 교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학업 지원보다 앞서, 학생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 “나는 이 공간의 일원이다”라는 감각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학생은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주변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문화교육 역시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자존감과 소속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결국 더 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끕니다.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다운 모습으로 교실에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보편교육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수업과 교실에서 조금씩 실천되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도와줄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눌 때입니다. 그 질문에서 출발한 작은 실천들이 학생의 삶과 교실의 풍경을 바꿔 나가리라 믿습니다.

참고문헌

- 강혜영, 이은설, 우유진(2021).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4차년도 기초 분석. 인천교육-2021-20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김문정, 홍문선, 김주광, 정희남, 조원영(2019).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인천교육-2019-10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김왕준, 여태철, 김종민, 박주형, 김민규(2018).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인천교육-2018-0067,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유정(2025).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적응 수준별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모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 윤희미(2017). 가족의사소통유형이 남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학교사회복지, 39, 149-175
- 변숙이(2025). 이주배경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간의 종단적 매개 효과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2025).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인천광역시교육청(2018~2025). 인천광역시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 학생생활 실태조사(2018~2020)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부 자료.
- K-문화사절단(2024). 너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우리. 쓰는 하루, 11-12. 인천교육-2024-0236,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 임태원(2022).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II(1차년도). 인천교육-2022-22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3).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II(2차년도). 인천교육-2023-18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4).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II(3차년도). 인천교육-2024-25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5).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II(4차년도). 인천교육-2025-29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요즘, 인천 학생 ⑤ 다문화교육편

우리 | 다름이 함께의 일상이 되다

기획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효영(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김병수(인천당산초등학교 교감)
김용순(인천학익초등학교 교감)
김용진(동암중학교 교감)
서해주(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집필 | **위원장** 유충렬(선인고등학교 교장)
위원 홍성철(인천십정초등학교 교감)
강인성(인천만석초등학교 교사)
석경원(인천십정초등학교 교사)
이진숙(인천송월초등학교 교사)
윤소영(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자문 |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http://www.ice.go.kr>

032-423-8232

ISBN | 978-89-6960-141-4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03370

9 788969 601414

ISBN 978-89-6960-141-4 비매품